

10_2. 임직 그리고 사임_2 (1974~1976)

1974년(53세) 1월 28일 메시아 합동 대 연주위원회 이사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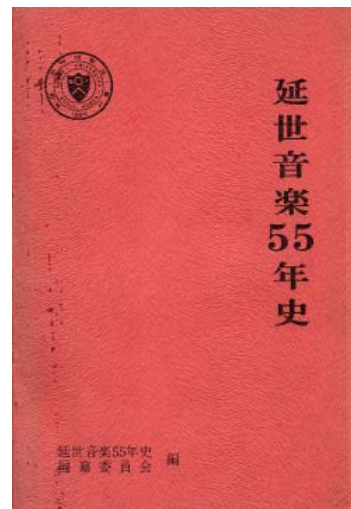
2월 25일 한국찬송가 위원회 주최로 선명회 수양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개편찬송가의 재개편을 주장함」이란 제목으로 발제 강연하였다.

2월 26일 「교향곡 제12번 '남과 북」 작곡을 착수하여 3월 6일 완성하였다. 이 곡은 현악기군을 Ordinario와 Scordatura의 2조로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말하자면 Scordatura를 처음 시도한 작품인데,¹⁰⁵⁾ 스코르다투라(Scordatura)란 현악기의 개방현을 보통 때와 다르게 조율하는 기법으로, 나운영은 정상 조율된 현악기군과 변칙 조율된 현악기군을 대비시켜 남과 북을 묘사한 것이다.

3월 1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에 정식으로 취임하여 첫번째 사업으로 5일 『연세음악 55년사』를 출판하고 9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나운영은 이 책에 실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글에서 ‘우리 연세대 음악대학은 비록 18년밖에 안 되지만 이미 55년이란 뿌리가 깊게 박혀버렸으니 단연 선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조금도 신기할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기에 역사와 전통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하려 한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¹⁰⁶⁾ 연세음악의 뿌리는 1918년부터임을 강조하였다.

즉 나운영은 연희전문학교 음악부(1918~1955)의 37년을 제1기 요람기로, 연희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1955~1964)의 9년을 제2기 태동기로, 그리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승격한 1964년부터를 제3기 개화기로 보아 1973년까지의 9년을 합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를 55년으로 본 것이다.



3월 13일 명동 예술극장에서 <제3회 나운영교향악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1. Symphony No.12

105)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8쪽

106) 연세음악55년사 9~10쪽

2. Piano Concerto No.3

피아노 독주: 나효선

3. Violin Concerto No.2

바이올린 독주: 김동석

4. Symphony No.10 "The Creation"

합창: 성남교회 성가대

관현악: 서울시립 교향악단

지휘: 나운영



이 작품발표회의 두 협연자는 의미가 각별하다. 먼저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한 이는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자신의 큰 딸인 나효선이고,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협연한 이는 김동석이다. 김동석은 명동에 있는, 술도 마시며 클래식 연주를 들을 수 있던 '산수갑산' 무대에서 연주를 하던 바로 그 김동석이다. MBC 관현악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김동석은 테크닉에서나 표현력에서나 국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었지만, 사정 때문에 밤무대 연주도 마다하지 않아 순수 음악인들로부터는 무시와 배척을 당했었다. 그러나 나운영은 김동석의 재능을 인정하여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김동석에게 협연을 부탁한다.

이 음악회 프로그램에 삽입된 캠페인 안내장이 재미있어 소개한다.

작곡가, 연주가의 사활문제와 음악계의 진흥을 위한 캠페인!!

1. 초대권을 돌리지 말자!
2. 초대권을 기대조차 하지 말자!
3. 만약에 한 장의 초대권을 받았을 때는 두 장 이상의 회원권을 사 주자!
4. 음악회 때에 꽃다발 대신에 오선지를 선사하자!
5. 우리는 결코 생활비를 보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치명적인 결손을 부담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6. 영화계, 체육계 등에 비해 유독 음악계의 발전이 더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 초대권이란 존재 때문이다.
7. 초대권을 없애자!

* 초대권을 보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월 22일 「교향곡 제13번 ‘아리랑’」 작곡을 착수하여 27일 완성하였다. 이 곡에서는 나발, 목탁, 장구를 사용했고 특히 제2악장에서는 7음으로 된 Atonal Scale을 창안하여 이를 Serial적으로 처리하였고 제3악장은 점묘적 기법으로 되어 있어 농악의 현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¹⁰⁷⁾

3월 27일 연세대 채플시간에 ‘보지마라, 듣지마라, 말하지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4월 문교부 교수자격 심사위원회에 취임하였고, 5일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여 **윤경음악도서관을 창설하고 관장에 취임하였다.**

음악연구를 위한 전문음악도서관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다. 어렵게 구한 책이나 악보를 대출해 줄 수도 없었고, 레코드판을 틀어 줄 수도 없었으니 사실 논문 지도를 위한 사랑방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복사를 하도록 했는데, 몇몇 책이 뜯겨져 나간 것을 발견한 이후로는 음악도서관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4월 16일 **미 국무성 초청 Portland 대학교 교환 교수로 한국의 고대 음악과 현대음악을 강의하기 위해 도미渡美**하여 25일 Buckley Center Auditorium에서 University-Community Orchestra와 나운영 자신의 지휘로 「교향곡 제13번」을 세계 초연하였다.



5월 5일 **미국 Portland 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07)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8쪽

여기서 잠깐 나운영이 포틀랜드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항공 편지를 하나 소개한다.

유경손, 유겸손, 유경술, 유주경, 요지경, 하숙집 주인 아줌마, 효선,효진,나건 엄마, 나운영 사모님, 박상현 장모님, 소현이 할머니, 운경음악유치원 원장 선생님, 운경합창단 지휘자님, 서울 Y 이사님, 동남아 국제유아교육자대회 한국정식대표, 서울음악아카데미 부원장, 운경음악도서관 명예관장, 한국민속음악박물관 명예관장, 영동지구 주택건설기성회 회장 각하 나리님이시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학장이 운전수가 되어 Down Town 구경을 낮에 시켜 주었고, 밤에 Orchestra 연습을 시켰는데 통역 없이 어쨌든 간에 혼자서 연습을 시켰으니 나의 영어 실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외다. 악보가 늦게 도착되어 한 번밖에는 연습 못했으니 Symphony No.13의 제1악장만 하자고 관현악 지휘 담당자가 말하기에 그렇다면 제2악장은 빼드라도 제3악장은 꼭 해야만 하겠으니 초견으로 한 번 해보자고 했지 뭐니까?

이 학교 Orchestra는 학생 교수 혼성팀인데 나이가 많은 교수가 10여명이 끼어 있는데 어찌 믿음직하고 보기가 좋은지. 이 교수들이 그렇다고 모두 음악과 교수가 아니라 전공이 다른 교수들인데 상당히 잘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단 말짚야...

장구, 징 치는 법을 설명해 주고 제3악장을 초견으로 해 보니 그야말로 한국 농악 기분이 절로 난단 말짚야...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제1,3악장을 연습했는데 잘 되니 천만 다행이야. 내주일에 한 번 더 연습하고 총연습 할 것이니 문제가 없을 듯 하외다. (중략)

밤 손님 또 찾아오지나 않았는지? 안방시계 잠자지나 않는지? 고양이 요즈음도 사랑의 2중창 하는지? 아이고 걱정도 많아라. 나는 지극히 건강하고 매일 신나고 잘 자란다오.

근엄하기만 할 것 같은 나운영에게는 이런 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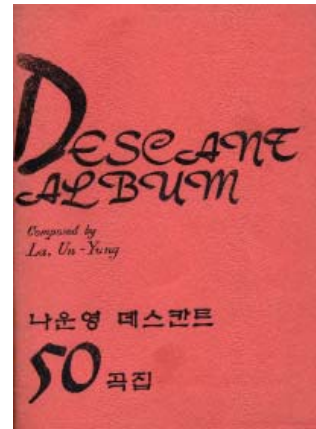
7월 20일 「산토끼」의 작곡자 이일래 선생을 상봉하고, 23일 난파노래비헌정식에 참석하였다.

8월 13일 비파사에서 『나운영 데스칸트 50곡집』을 출판하였다.

8월 18일 제주도 한국민속박물관 개관 2주년기념예배를 삼보교회에서 드리고 삼보교회 간판을 달았고, 28일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음악지원 심사위원회에 취임하였다.

9월 5일 일본 교토(東都)에서 열린 제2회 아세아작곡가회의 참석차 도일하여 10일 오사카 예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11일 국립음대를 방문하였다.

10월 1일 대학원 증과, 증원을 신청하였고, 문예진흥원에 주태익 대본 「바보 온달」 창작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난파 전기를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10월 26일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현대음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0월 30일 어린이들에게 좀 더 명랑하고 건전한 새노래를 안겨주기 위하여 뜻을 같이한 동요시인, 작곡가 30명이 모인 **한국 동요동인회 제8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하였는데, 부회장에는 어효선, 김규환, 총무간사에 박경중, 감사에 이석현이 선출되었다.

11월 6일 <제2회 Triton 작곡발표회>가 예술극장(명동)에서 한국현대음악협회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이 음악회에서 나운영의 제자인 이상언, 최동선, 최 충, 고희준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나운영은 이 프로그램에서 ‘오직 한국적 현대음악창조를 지향하는 이 모임이 자라고 또 자라서 장차 Triton악파가 형성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하였다.

11월 19일 한국 찬송가 위원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바람직한 한국찬송가학의 형성을 위하여-음악적인 면에서의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 강연하였다.

12월 30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사임**하였다. 불과 1년 5개월 10일만에 물러난 것이다. 이 사임배경에 대해서도 나운영은 구체적인 설명이나 글을 남기지 않아 당시 정황을 미루어보아 추측을 할 뿐이다. 잠시 연세춘추에 실린 글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알아보자.

1974년 9월 28일 정기연고전이 연세대학교의 참패로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은 총장공관으로 몰려가 결과에 대해 항의 했다. 이는 학생들의 분풀이로 해석돼 사회에 알려졌으나 실은 학내 민주화 개혁을 끌어낸 ‘10·1사태’의 출발이었다. 이는 학교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이어져 10월 1일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총장면담을 요구했고, 그 이후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돼 결국 8일 교무회의의 휴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태는 박대선 총장이 18일 ‘대학개혁안’을 발표하고 나서야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28일 다시 강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 개혁안에서 오늘날의 교수평의회가 탄생됐으며 이는 29명의 평교수로 구성, 대학행정 전반에 걸쳐 교수의 의견을 일정하게 반영함으로써 교수와 학교 행정체제와의 거리감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하게 됐다.¹⁰⁸⁾

교수평의회 발족으로 인해 그동안 보직을 맡아왔던 교수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조직이나 개혁이나를 선택해야만 한 것이다. 나운영은 행정에 뛰어나지 못함은 물론 절대 정치적이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작곡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소신과 열정이 있었지, 대학조직의 복마전 같은 술수에 적응할 수 없었다. 모함, 배신... 이 때 앞서 언급한 서울음악아카데미 원장 겸직에 대한 밀고까지... 그래서 그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만다.

개혁의 깃발을 휘날리던 교수평의회도 불과 1년 만에 해체되고, 학생들의 시위도 그치지 않아 1975

108) 연세춘추 ‘연세100년을 돌아 본다’ (1999 이정주 기자)

년 4월 10일 박대선 총장도 결국 사임하였다.

1975년(54세) 1월 11일 둘째딸 효진孝珍이 결혼하였다.

1월 29일 **중앙 음악콩쿨 운영위원회**에 취임하였고, 2월 4일 **한국 찬송가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나운영 부부는 동자동 유치원과 집을 서울성남교회에 매각하기로 결심한다. 서울성남교회는 날로 부흥 발전하여 열악한 그 지역의 청소년을 선도하는 복지관이 필요했고 나운영 부부는 유치원이 좁아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⁰⁹⁾ 서로 간에 목적하는 바 뜻은 맞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돈이었다. 서울성남교회의 재정으로는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운영 부부는 매매계약은 하되 매년 형편이 되는대로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잔금이 끝날 때까지 유치원은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주일에만 교회가 일부 시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운영 부부는 처음 동자동으로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를 와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뜨릴까봐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이 문제가 아니었다. 외부인에게 팔지 않음으로서 서울성남교회의 울타리는 그대로 지켜지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부흥 발전해 나갈 비전을 갖게 된 것이다.

나운영 부부는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우선 주택부터 옮기기로 하고 마땅한 지역을 알아보던 중 반포지역을 소개받게 된다. 당시는 영동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던 때였다. 신흥개발지역은 유아들이 많아 유치원을 하기에 적당할 것 같아, 몇 년 후를 내다보기로 하고 3월 **관악구 동작동 307 반포아파트 73동 103호로** 이사를 하였다.

3월 13일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음악지원 심사위원회**에 취임하였고, 26일 「누군가 말하라」를 작곡하였다.

4월 14일 **방송윤리위원회 산하 가요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25일 **한국 찬송가위원회 음악분과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5월 7일 한국 영가의 화성체계를 창안(나의 새로운 화성체계 창안)하여 「영가」를 작곡하였다.

5월 29일 향린교회에서 한국찬송가학회 주최로 개최한 제1회 신작찬송가 발표회에서 「영가」, 「주는 나의 친구」, 「하늘의 은혜」, 「이 땅 이 하늘에」, 「누군가 말하라」를 발표하였다.

109)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66쪽

6월 2일 교송음악문고를 인수하고 9일 **한국 양악 100년사 자료 모집**을 개시하였다.

8월 24일 제주도 대한 나운영의 애착이 극에 달해, 나운영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땅을 좀 더 매입하는 한편, 여행객들을 위한 방가로도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렸다. 또 감귤농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는 제주도에 적합한 품종이 개발되기 직전이라 제주도의 강한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였다. 음악 밖에 모르는 나운영이 사업을 벌였으니, 그 결과는 뻔한 일 아닌가.

한참 후에 안 일이지만 모든 일들을 현지인들에게 위임하는 바람에 1,000여평 정도가 소유권조차 넘어오지 못했고, 감귤 농장을 위한 방품림 조성에 들어간 비용도 과다했을 뿐 아니라 매년 감귤 농사를 위한 비용만 계속 지불하였다. 그래도 1년 수확의 결과로 달랑 감귤 1상자가 비행기로 배달되어 왔는데, 그 항공요금이면 감귤 몇 상자를 사 먹어도 될 것이었다. 그래도 나운영은 제주도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고, 몇 년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유경손을 달랬다.

처음 몇 년은 합창단원, 제자들, 교인들, 친지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였지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제주도의 좋은 숙박시설을 놔두고 굳이 불편한 방가로를 이용할 리 만무였다. 더군다나 민속박물관이나 방가로나 모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이용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더욱 더 속상한 것은 민속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일이었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민속자료들을 제주도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10여년을 버티다가 결국 제주도민속박물관을 철수한다.

한 십여 년만 더 참고 견뎠으면 제주도 개발 붐을 타고 큰 소득을 얻을 수도 있었을텐데, 나운영 부부는 이런 투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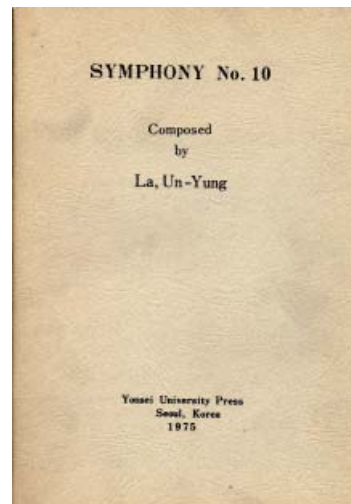
10월 5일 『교향곡 제10번(Symphony No.10)』을 연세대 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10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작곡가회의에 참가하였고, 11월 1일 한국현대음악협회 회장으로 3번째 선출되었다.

11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관 회의실에서 제3수상집 『스타일과 아이디어』(보이스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제3수상집에 실린 그의 머리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음악인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듯 하다. 그 까닭은 여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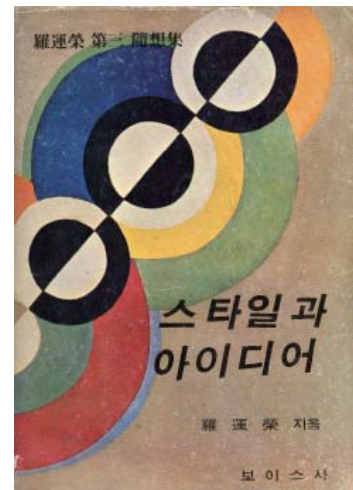


때문인가 보다.

이와 같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게을리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식은커녕 상식조차 부족하여 자기 전공밖에는 모르는 '쟁이'로 전락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예술을 설명·옹호하기 위한 글조차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릴까 두려워진다.

문필가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홍난파 선생을 본받아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제3수상집을 내놓게 되었으니 감개가 무량하다고나 할까 ….

'어느 이독(吏讀) 문학도의 수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책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하나의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또 이 제3수상집 후기에서 나운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1수상집 『주제와 변주』를 낸지 10년, 제2수상집 『독백과 대화』를 낸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보, 신문, 잡지 등에 발표되었던 것 중에서 50여편을 추려 보았습니다.

제3수상집을 <STYLE과 IDEA>라 제(題)한 것은 현대적 스타일과 민족적 아이디어에 의한 한국음악의 창조가 곧 나의 지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학교수생활 30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출판되는 이 음악주변의 이야기가 우리의 민족적 과제인 <토착화와 현대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1월 24일 KY '만나고 싶은 사람'에 출연하여 방송을 하였고, 12월 14일 성남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에서 성가대 지휘 근속 28년 표창을 받았다.

1976년(55세) 2월 4일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스코어(총보)가 행방불명된 것을 확인하였다. 언젠가 작품 보따리를 가장 신경 써서 챙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스코어는 안 보이고 바이올린 솔로 파트와 제1바이올린 파트보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나운영은 작품들을 봉투 봉투마다 넣어 놓았었는데, 동자동에서 반포아파트로 이사할 때 위낙 종이 꾸러미가 많았으니 짐 나르는 사람들이 악보인지 폐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2월 5일 오페라 「에밀레종」 공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문예진흥원에 스코어를 접수시켰다.

2월 28일 21년간 근속한 연세대학교를 사임하였다.

1955년 연희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조교수로 취임해서 21년 동안 몸담아 오던 연세동산을 떠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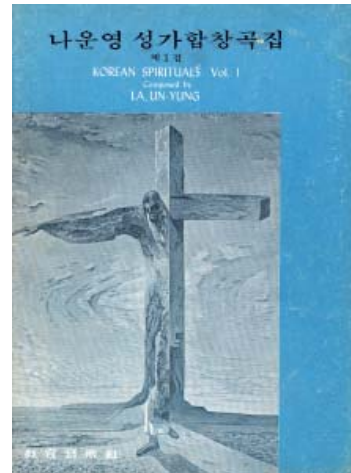
나운영은 자신의 년보年譜에 1976년 2월 28일을 ‘작가 본연의 자세로 새 출발함’이라고 적고 있다. 또 그의 자서전 메모에 보면 ‘칠전팔기’, ‘작가 본연의 자세로’, ‘재출발 아닌 새출발’, ‘사필귀정’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중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사필귀정(邪必歸正)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특이하다. 이두문자, 즉 발음은 같지만 한자를 바꾸어 전혀 엉뚱한 뜻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던 나운영답게 이두문자로 쓴 간사할 ‘사(邪)’ 이 한 글자로 그간의 사정을 다 토로한 것 같다.

3월 8일 La's 4th Harmonic Structures를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안하여 이것을 오페라 「바보 온달」에 사용기로 하였고, 4월 2일 성가독창곡 「늘 승리하리」를 작곡하였다.

4월 6일 한국찬송가위원회 음악분과위원장에 재선되었고, 8일 La's 5th Harmonic Structures를 창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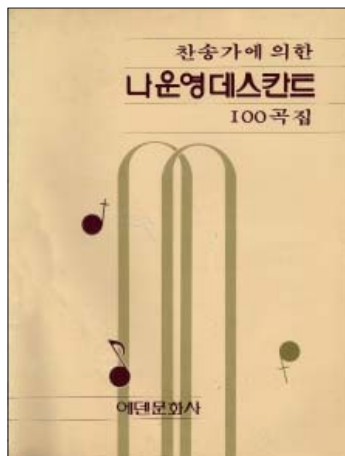
6월 14일 『나운영 성가합창곡집 제1집』(교회음악사)을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이것은 나운영의 15번째 출판기념회였다.

표지의 그림은 신영헌 작 ‘대속의 길’이다.



6월 24일~26일 한국현대음악협회 주최로 중앙국립극장 소극장에서 '76 현대음악제를 개최하였는데, 제2일째 되는 날 「한국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하였다.

9월 13일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음악 출판위원회 실행위원장에 취임하였고, 30일~10월 1일 전주에서 교회음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16일 **목원대학 음악과 교수에 취임**하였다. 나운영은 연세대에 재직하면서 가끔 목원대에 출강하였기에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복마전같은 교수행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으니 한결 홀가분해졌다. 더욱이 오고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며 그동안 복잡했던 머리를 식히며 작품구상을 할 시간이 생기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10월 26일 성가독창곡 「사도신경」을 작곡하였다.

12월 5일 1974년 비파사에서 출판하였던 데스칸트 50곡에 새로 작곡한 50곡을 추가하여 『찬송가에 의한 나운영 데스칸트 100곡집』(에덴문화사)을 출판하였다.